



◁8일 개원 예정인 '만해마을' 전경. 이곳에서 '2003만해축전'이 열린다.

백담사에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학, 민족혼을 계승하기 위한 '만해마을'이 8일 문을 연다.

백담사 '만해마을' 8일 오픈

문학박물관 등 7개 공간 갖춰...반야심경 정신 담아

건축가 김개천 씨가 설계한 '만해마을'은 2,075평의 대지위에 만해문학박물관(지상 3층), 만해사(지상 2층), 문인의 집(지하 1층, 지상 4층), 만해학교(지상 2층), 심우장(지상 2층), '님의 침묵' 만해광장(272.3평), 경절문(徑截門) 등 7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만해문학박물관은 내부 설계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무극의 공간을 연상시켜 마치 만해스님의 '일출 없어요'란 시를 건축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원보전'의 법당이 있는 만해사도 대청형태로 된 검은 사각형 모양의

벽이 일획으로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공(空)과 색(色)은 물론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 <반야심경>의 색합공(色舍空)의 정신을 건축화 했다. 또 문인의 집과 만해학교는 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국제회의 및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연수시설로 꾸며졌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2003만해축전'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번엔 새롭게 문을 연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축전에서 '만해학 심포지엄'은 9-10일 정치사회와 불교로 나누어 두 차례 열린다. '만해의 정치·사회 사상' 심포지엄은 윤세원 인

천전문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장시기 동국대 교수, 전보삼 신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또 '조선불교유신론의 21세기적 의미' 심포지엄은 정광호 인하대 명예교수, 서재영 의상만해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식 부천대 교수, 허도학 경남일보 논설위원, 고명수 동원대 교수, 이도홍 한양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담당한다.

'제7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대중 前 대통령(평화부문),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학술부문), 소설가 조정래 씨(문학부문), 무용가 이애주 서울대 교수(예술부문)가 각각 수상한다. 문의:(033)635-2868.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수험생 학부모위해 봉은사, 명사 강연회

강남 봉은사는 수능 D-100일을 앞두고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범왕루에서 대입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 입시철을 앞두고 사찰과 교회에서 열린 대학입학 기도회 일반도에서 벗어나 신도들에게 입시에 대한 기본소양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험생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사초청 강연회는 전통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의 '수험생을 위한 건강음식', 종로학원 김홍근 평가실장의 '수능 D-100일 학습 및 입시전략', 서울대 종교학과 윤이홍 교수의 '기도와 정진-마음을 밝히는 법'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내안의 평화 세상의 평화' 주제 22일 조계사에서 '화엄광장'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 안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제9차 화엄광장이 열린다.

22일 오후 6시 30분 조계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화엄광장은 박성준 교수(성공회대, 평화학)가 발제를 맡고 이향천 한생명연영위원장 외 1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광장에서는 △개인적 사회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내·국제적으로 평화를 실

현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평화를 위해서 교통과 연민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을 고민한다.

한편 인드림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9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 목 저녁 7시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 2층에서 제13기 불교기독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의:(02)737-6181 남동우 기자

클래식·재즈·불경의 만남

가람아트홀서 이색무대

독경 소리와 재즈 색스폰 연주자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가 7월29일

가람아트홀에서 열렸다. '클래식과 재즈와 불경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재즈 색스폰 연주자 최광철 씨와 부산불교교육대학 장의봉 사 정토팀(팀장 수덕 이종규)의 천수경, 반야심경 집전 의식이 만난 것이다. 불경과 재즈 색스폰의 협연으로 목탁, 염불소리, 색스폰 소리의 어울림으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공연은 부산 출신의 색스폰 연주자 최광철 씨가 부산에서 갖는 첫 공연으로 최 씨는 이정식 씨와 함께 우리나라 색스폰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재즈 연주자. 국악과 재즈의 만남, 종교와 재즈의 만남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온 주인공이다.

이날 천수경, 반야심경 협연 외에도 베토벤 '비창 소나타'의 멜로디를 기본으로 자유로운 변주와 애드립을 섞어 재즈화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이려는 하면, 비틀즈의 '에스터 데이'를 소프라노 신유희 씨가 부를 때 그 노래의 느낌을 역시 즉흥성이 살아있는 재즈 연주로 표현해 호응을 얻었다. 부산=천미희 기자

'무농약쌀 한말 사먹기'

농업살리기연대서 캠페인

우리 쌀을 지키고 어린이들에게 생명 터전을 물려줄 '무농약쌀 한말 사먹기 범국민운동'이 펼쳐진다.

우리농업살리기연대(공동대표 도법)는 WTO 협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추진될 쌀 수출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무농약쌀 한말 사먹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인드림생명공동체 이정호 사무처장은 "쌀 한말을 생산하기 위

한 땅은 약 7평"이라며 "무농약쌀 한말로 땅 7평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쌀을 구입하는 비용에 1만원을 보탠다면 쓰러져 가는 농업과 농촌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 생존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2)529-6347 남동우 기자

경영·정보교육센터 22일 개원

불교아카데미, 단체, NGO 교육장으로

(사)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현수)가 교계 최초로 경영·정보교육센터를 마련한다.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7번지 매트로빌딩 3층에 마련되는 경영·정보센터는 불교적 가치를 사회 속에서 펼쳐갈 인재 양성의 산실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 갈 비영리단체들의 전문 배움터로, 모든 불교단체와 사찰, NGO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교육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30여명 규모의 경영·정보센터는 빅프로젝터 등 미디어활용 기자재와

최신 노트북 및 무선LAN 등이 설치돼, 공개강좌 및 세미나, 각종 회의 및 명상모임 진행이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스님들을 위한 인터넷 활용법 등 실용/실무능력과 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과정 등 경영/리더십, 직장인을 위한 일터 생활명상 등 문화/교양, 비영리단체 회원 및 조직관리 등 NGO 지원교육 공개강좌가 열린다. 개원식은 8월 22일 오후5시, 문의: (02)741-1066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31일자로 같은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남동우 기자

재소자 조상영가 위로 원각사, 천도재 봉행

양평 원각사주지 범승가 재소자 및 여주교도소 불심회(교도소 임직원 불자회) 조상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7일 오후 1시 여주교도소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천도재에는 해산스님

(한국전통의식대학장), 여주 신복사 주지 세영스님 등이 참석, 천도재를 통해 150여명의 조상 영혼을 천도하게 된다. 또 이날 재소자 및 교도대 2천여명분의 떡과 과일 등 위문품 전달식도 이뤄진다.

범승스님은 "교도소에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인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문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런 나눔 콜택시
1588-5532

내안의 폭력 뿌리뽑기

목탁소리 남동우 (취재1부 기자)



현재 전북 부안은 전쟁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해방기장 백지화·해방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7월 26일 집회과정에서 경찰측이 방패로 찌고, 곤봉으로 때리는 등 강경 진압을 일삼았다'고 한다. 특히 '삼보일배 성직자 문규현 신부(부안성당 주임신부)는 경찰의 집단구타로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성직자에 대한 폭력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가장 비근한 예가

지난해 2월 18일 의정부 송추 북한산관동도로 건설현장에서 LG직원들에 의해 벌어진 회룡사 성타, 성환, 법련 스님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다. 이 두가지 사안의 공통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과의 대립과 갈등에서 폭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영신 교수(연세대)는 7월 29일 북한산 관동도로 관련 기자회견 뒤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내 안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제언했다.

교계에서도 총무원 호법부의 폭력(본지 432호 참조)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유행무형의 폭력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아직 자기 참회기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새만금 삼보일배를 기억하고 있다. '내 안의 폭력 뿌리뽑기'도 불교계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른 종교도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길 서원해본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백중기도 및 회향안내

우리절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불교의 천도명절인 우란분절 백중기도기간을 맞아 불자들의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위하여 칠칠재를 봉행하며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회향법회가 봉행됩니다.

제 2차 천심삼일기도 회향

지난 2000년 11월 5일부터 시작한 제2차 천심삼일기도가 오는 8월31일 오전10시 조계총림 송광사 율원장이며 부산의 동승종합사회복지관과 동승자활후생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 부산 관음사 주지 지원대화상을 모시고 마침내 회향을 맞게 됩니다. 보다 아름다운 회향이 되도록 불자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